

# WHAT'S UP, O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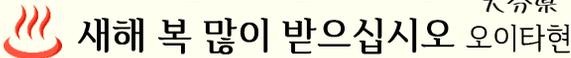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월(제5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재정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해외에 계시는 오이타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7월 호우로 모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립 미술관 OPAM은 벌써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한 ‘반 시게루 건축전(坂茂建築展)’이 열렸습니다. OPAM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덕분에 지난 2020년은 방문객 300만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오이타 공항과 현의 중심부를 잇는 ‘호버 크래프트(공기부양선)’ 도입 계획은 ‘제일교통산업(주)’이 위탁을 맡게 되었으며, 2023년 취항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 현이 럭비팀 ‘캐논 이글스(キャノンイーグルス)’의 두 번째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하고, 거점형 중학교에 럭비 동아리가 잇따라 신설되는 등 2019 럭비 월드컵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오이타형 지방창생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외교류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고향 오이타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올해는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부장 다카야 히로시 드림

분고타카다시의 새로운 매력

豊後高田市



디지털 아트 갤러리 분고타카다시



작년 8월 오픈한 갤러리

지난 해 ‘나가사키바나(長崎鼻)해수욕장’에 새로이 디지털 갤러리가 생기면서, 과거 최대 관광객 수를 기록했습니다(10월 말 기준). 이번 호에서는 매력 넘치는 분고타카다시의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나가사키바나 디지털 아트 갤러리

: 서로 다른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미술관

이 작품은 햇빛이나 날씨,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변해서 매번 색다른 감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센서를 활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불균질성(물리적,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지 아니함)’, 또는 인공물의 ‘균질성’을 디지털 아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안내말씀] 분고타카다시 지역활력창조과

분고타카다시에서는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아키야뱅크(空き家バンク, 부동산 매물 정보 및 매매 지원)’ 운영, 이주민 보조금 지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고향사랑 기부금)’는 육아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QR코드 또는 하단의 링크를 검색하시면 9년 연속 ‘살고싶은 시골’ 3위 이내로 선정된 분고타카다시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랭킹 출처 : 이주 정보 월간지 ‘田舎暮らしの本’)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r-4Ous9aB8>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월(제5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재정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일본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상승중  
 오이타 프로모션 개최 중국 상하이



(왼쪽 나카쓰 가라아게, 오른쪽 히타 야키소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중국에서는 일본의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일본'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날이 높아지는 일본의 인기에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는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APU(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을 졸업하고 메지론 해외 서포터즈로 임명된 '장사기(張思奇)씨'가 운영하는 일식점 '사오야(筍屋)'에서 작은 오이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이타 명물 '나카쓰 가라아게(닭튀김)'와 '히타 야키소바(볶음국수)', 그리고 '아쓰메시(생선덮밥)'가 특별 메뉴로 제공되었으며, 오이타산 보리소주 '무례즈루(牟禮鶴)'의 판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오이타 본고장의 맛을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손님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장사기(張思奇)씨와 일식점 사오야 내부



- 규슈, 오키나와의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하다  
지난 12월 19일, 주상해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縄)의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규슈지방 각 현과 오키나와현 관계자, 그리고 JR규슈 상하이 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관광지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토음식과 B급 구루메(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 소개, 주류 시음 코너 등이 마련되었으며, 오이타현에서는 오이타현 명물 가라아게와 아쓰메시, 유자 리쿠르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방문객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규슈와 오이타를 여행하는 기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월(제5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재정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8개월 입국대기 끝에 드디어 왔다!

大分県

 국제교류원(한국) 노지영 오이타현



국제교류원 (한국)  
노지영  
盧知榮 (ノ・ジヨン)  
Noh Ji Young  
2020년 12월 ~ ?



그리고 제가 닭고기 요리, 특히 치킨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오이타’ 하면 또 ※가라아게와 토리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닭튀김이 명물인 오이타현에서 일 하게 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 가라아게(唐揚げ)와 토리텐(とり天) 모두 닭튀김이지만, 가라아게의 경우 전분가루를 묻히지 않고 튀겼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리텐이 더 부드러운 편)

그래도 한국인인지라, 가끔 한식이 먹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맛있는 한식 요리집에 저도 데려가주세요. 같이 맛있는 것 먹으러 가요!

어디에서든 저를 발견하신다면 반갑게 ‘노지상!’ 하고 인사해주세요. 웃음으로 답해드릴게요 ☺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구도시 부산의 모습



오이타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 인상은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다!’ 였습니다. 제가 지내던 부산은 어디를 가든 건물들이 뻥뻥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이타는 굉장히 자연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이타 공항에 도착해서 오이타시로 이동하는 동안 차에서 본 아직도 물들어 있던 산의 단풍과 벚푸만 등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다른 느낌의 오이타가 정말 마음에 든답니다.

